

주일에배

오전 (1부) 8시30분 7시
오전 (2부) 7시30분 10시
오전 (3부) 10시 2시
오전 (4부) 2시 4시
금요일 (1부) 18시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Jesus Centered News

예수중심교회

2013년 12월 1일 (제718호)

주일에배

오전 (1부) 7시30분
오전 (2부) 10시
오전 (3부) 2시
저녁예배 7시30분
수요일예배 (4부) 8시

인천 교회 032) 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서울) 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 (월요일 예배 위치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칼럼

적응력

동물의 세계를 보면 종족번식 우위를 점유하는 동물은 훨씬 자도 아니고, 날쌔게 자도 아니다. 적응력이 뛰어난 동물이 살아남고, 종족도 번식시킨다. 인간사회도 그다지 다른 것 같지 않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 적응력은 필수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적응력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 증거가 되는 말씀이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고전 9:20-23).

적응력이란 말 그대로 일정한 조건이나 환경 파위에 맞추어 응하거나 알맞게 되는 능력을 말한다. 요즘 글로벌 리더를 연어에 비교하는 자들이 있다. 다른 것보다 민물에서도 살 수 있고, 바닷물에서도 살 수 있는 연어의 적응력 때문이다. 연어는 이 놀라운 적응력으로 때가 되면 고향을 등지고 너른 바다로 뛰어들는다. 글로벌 시대에는 연어와 같은 적응력이 있어야 성공한다. 단연컨대 시대의 변화 속도에 적응할 줄 아는 자가 분명 미래를 주도할 것이다.

먼저 내 땅부터 기름져야 한다

10년 전 처음 아르헨티나(Argentina) 포사다스(Posadas)를 방문하여 루벤(Ruben)목사와 집회를 마친 후, 공항에서 그들 부부와 작별하며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난다. 루벤 목사 부부는 공항을 떠날 생각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가내에 올라 있는 중에도 공항 철문 너머로 열심히 손을 흔들고 있었다.

"오늘 저들과 헤어지면 언제 또 다시 볼 수 있을까? 아마 천국에 가서야 만나보겠지?" 그런데 인간사 그 인연을 참 알 수 없는 게, 벌써 루벤 목사네 집에서 목사님은

있었다. 목사님은 깜짝 놀라시며, "어떻게 지갑 선물할 때 돈을 넣는 걸 알았지?" 하고 묻자 루벤 목사는 빙그레 웃으며, "6년 전 한국에 갔을 때 배운 겁니다. 그 때 아는 게 없으면 할 일도 없다고 배웠죠." 라고 화답하자 목사님은 무릎을 치며 크게 기뻐하셨다. 가르치는 자의 기쁨은 제자가 배운 대로 실천하는 모습 아닐까?

포사다스에서 엔카르나시온으로 가려던 국경을 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절차가 매우 느려서 심한 경우에는 서너 시간도 족히 걸린다고 한다. 파라과이가 국력이 약하니 아르헨티나로부터 그런

고, 성도들의 합성으로 가득했다. 목사님은 모든 피로가 풀린다면 감사를 표하셨다.

"정말 긴 여정에 힘들었는데, 여러분의 열렬한 환영, 그리고 한국 성도들의 기도도 모든 피로가 다 풀려버렸다. 이제 우리 파라과이 예수중심교회는 이 도시뿐 아니라 파라과이 전체를 리더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 교회에서 이 나라의 지도자가 나와야 하고, 재계, 학계, 법조계, 군경, 문화, 체육계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의 머리들이 배출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나라를 성장 발전시키는 주역으로 이 나라의 중심에 서는 교회로 성



파라과이 예수중심교인들이 깃발을 흔들며 열렬히 환영하고 있다

생일상을 두 번이나 받고 있었다. 이현숙 선교사의 파라과이(Paraguay) 예수중심교회가 있는 엔카르나시온(Encarnacion)으로 가려던 국경 쪽 이 도시를 거쳐 아하기에 공항영접은 포사다스 교인들의 맞이하고 점심식사는 꼭 이들 부부가 내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도 복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복으로 루벤 목사는 암도 고침을 받았고, 교회적으로 큰 시험거리가 되어 목회생명이 끝날 수 있던 사건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기에 루벤 목사는 목사님을 뺨(Papa)라고 부르며 정성을 다해 섬기고 있었다. 그는 목사님 생신 선물로 지갑을 선물하며 그 속에 200불을 넣어놓

대접을 받는 셈인데, 목사님은 이것이 파라과이의 무능한 정치 때문이라고 지적하셨다.

"권력 있는 자들은 초스피드로 통과하고 일반 백성들은 피약법에 서너 시간을 걸려 통과해야 한다는 것은 도무지 말이 안 된다. 이게 다 무능한 정치인들 때문이다. 그래서 먼저 내가 있어야 하고, 내 나라가 잘 살아야 한다. 내 땅부터 기름져야 한다."

새로 이전한 파라과이 예수중심교회 선교센터 앞 도로에는 우리 교인들이 나와 대한민국 국기와 파라과이 국기를 흔들 어대며 목사님을 열렬히 환영해주었다. 파란 하늘 밑에는 온통 양국기로 휘날리

장해가기를 우리는 기도하며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요씨뿌에도(Yo si puedo)! 요씨뿌에도! 요씨뿌에도!"

성도들의 박찬 합성으로 일대가 떠나갈 듯하였다.

이 선교사는 목사님의 방면에 맞춰 빠듯한 일정으로 목사님을 적극 활용하고 있었다. 청소년 리더 교육, 초장교육, 시장면담, 실업인 세미나, 체육관 집회, 우루과이(Uruguay) 예수중심교회 리더교육 등으로 목사님은 연일 잠시도 쉴 틈이 없었다.

(다음 주에 계속)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아르헨티나 포사다스 공항에서 영접하는 루벤 목사 가족



파라과이 예수중심교회 조장교육을 마치고



파라과이 예수중심교회 청소년 리더세미나를 마치고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시107:1~43)



할수만 있다면 부르짖어 기도하라

세상에서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다들 돈을 벌려고 난리들입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에서는 돈이 아니라 기도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을 벌려고 아등바등 하듯 힘써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은 위기 때마다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루는 가까이 있는 참모가 링컨에게 “왜 위기 때마다 기도하시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링컨은 “나는 기도 이외에 최선의 방책을 모릅니다. 내가 가진 지혜와 주변 사람들의 재능도 어려움을 극복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오직 전능하신 그 분만이 최선의 방책을 알고 계십니다. 나는 그저 주님을 믿고 의지할 뿐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늘 말하지만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힘이요, 하늘 문을 여는 키(key)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은밀히 골방에서 하는 기도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마6:6). 그러나 이는 2절의 말씀,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에 대하여 기도의 올바른 자세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이려고 하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는 뜻입니다. 대신 성경에 부르짖어 기도라는 말씀은 256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귀가 먹었나?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대는 거야?” 우리 교회에 처음

나. 그러나 저는 정말 간이 쏠릴 정도로 절실함이라고 풀이하고 싶습니다. 훨씬 가슴에 와 닿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다가 풍랑을 만난 장면이 나옵니다. 그 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는데, 풍랑이 거세지자 제자들이 두렵고 놀라서 황급히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집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마8:25). 장면이 그려지십니까? 죽겠다고 소리 지르는 모습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걷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물 위로

걸겠다고 하자 예수님이



오라 하십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이 일자 두

려워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물속으로 폭 빠져 들어갑니다. 그 때 베드로가 소리를 마구 질러댁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마14:30).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실제 성경에는 부르짖어 기도하여 응답을 받은 사례가 많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나왔는데, 변심한 바르가 군사를 보내어 바로 추격해왔습니다. 설상가상, 앞에는 홍해로 가로막혀있었습니다. 이제 다 죽을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라니 걱정 말라” 하고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목이 터져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출14:15)라고 하시고는 홍해를 가르쳤고, 애굽 군대는 수몰시키셨습니다.

르호보암의 손자로 유대의 6대왕인 아사왕의 이야기입니다. 아사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여 평안한 가운데 있을 때에 백만의 구스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아사의 군대는 겨우 삼십 만 정도인데 말입니다. 그 때 아사 왕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 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대하14:11). 그러자 하나님께서 구스 군대를 멸하셨습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산헤립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고(대하32:20), 그가 병들었을

때도 간절히 기도하여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사38:3).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땅에 비를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18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으로 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삼년 육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얼굴이 무릎 사이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 땅에 비가 내렸음은 너무 당연합니다. 땅을 고치려는 수로보니까 여인도 예수를 향하여 소리를 질러 간구했고(마15:22), 소경 바디메오도 소리를 질러 예수님으로 하여금 돌아보게 했습니다(마20:30). 다윗도 시편 86편 7절에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라고 고백했고,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

서 능히 구원하시라”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히5:7).

주님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 과부를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

기도는 축복의 통로요 인생의 마스터키다

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눅18:6-7).

제 목소리에서 쇠소리가 나는 것은 성대가 파열된 채로 굳었기 때문입니다. 성대가 파열되도록 저는 부르짖고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왜 안 그랬겠습니까? 모함과 핍박이 몰아치는데, 마음에 한이 가득한데 어떻게 부르짖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결과 지금의 예루살렘 교단과 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감히 경고하건대, 밥 먹을 때나 기도하고, 교회 와서나 기도해서는 응답받기 어렵고, 되레 그날 하나님께 야단들을 수 있습니다. 왜 제가 곳곳마다 기도처를 만들어 드렸겠습니까? 모여서 수다 떨고, 밤이나 해먹으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기도하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만들어 드린 겁니다. 집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른 가족도 있고, 옆집도 있고 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기도처에 가서 부르짖고, 산에 가서 부르짖고, 차를 몰고 나가 차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지금 자녀문제, 가정의 문제로, 직장 문제로, 교회 문제로, 국가적인 문제로 힘들어하고 아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사면초가인 분이 계십니까? 대책이 없습니까? 지금이라도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시편 107편 말씀처럼 하나님이 고통 중에서, 흑암과 사망에서, 위험에서 건지시고 광풍을 평정케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는 죄가 죄 중에 가장 큰 죄다

나오신 분들이 많이 하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귀가 먹어 못 들으실까 봐 소리를 지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왜 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에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셨는지 보겠습니다. “크게 외쳐라 아까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 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아람 집에 그 죄를 고하라”(사58:1).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렘29:12~13).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렘33:3).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것은 곧 간절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응답과 소망의 열도는 정비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간절함’의 사전적 의미는 ‘마음속에서 우려나와 바라는 정도가 매우 절실함’입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 (5,000원)
(060)700-0688
(060)700-0633
(060)700-0288

은행 계좌 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나도 할 수 있다

십여 년 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목사님의 사모님이 어느 날 나에게 고민을 털어놓으셨다. 그것은 다름 아닌 둘째아이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여 학교를 안 간다는 것이었다.

사모님이 41세 때, 생각지도 않은 늦둥이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낳게 되었는데, 임신중독증으로 미숙아로 태어나 쫓을 뻔하지 못하기에 스포이드에 우유를 주입하여 먹이며 키우느라 갖은 고생을 하셨다고 한다. 그런데 그 힘들었던 세월이 지나간 지 얼마나 되었다고 또 이렇게 자신의 속을 썩이는지 하시며 한탄하시는 것이었다. 매일 딸아이가 학교에 갈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딸아이의 생각은 좀처럼 바뀌지 않았다고 했다. 그렇게 시간만 흘러가고 있는 중에 우연히 딸아이가 나에게 기도를 받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다. 그 이유인즉 그 시기에 나의 첫 간증집이 출간되었는데, 딸아이가 그 간증집을 접한 것이다. 사모님은 딸아이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에게 기도 부탁을 하셨던 것이다.

나는 난생처음 그런 부탁을 받고 어찌할 줄 몰라서 뒷걸음질을 쳤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였다. 그리고 사모님 댁에 전화를 하였다. 아이와 통화를 하기 위해서이다. 내가 직접 가지 않고 전화를 한 이유는 그들이 직원도라는 먼 곳에 있기 때문이다. 나와 통화를 한 아이는 썩스러운 듯 조용히 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내가 제일 먼저 이야기해준 것은 조련 받은 코끼

리 이야기였다. “조련 받은 코끼리는 자신의 몸집에 비해 아주 작은 말뚝이 두려웠던 것처럼, 너도 그 아이들이 무섭고 상대하기 싫다고 생각되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친구들과 대화의 물꼬를 트면 친구들과 어울리며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어.”라고 위로했다. 그리고 전화를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의 생각을 조종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이 아이에게서 당장 나갑시다.” 하고 명령했다. 그러자 아이가 말하길 “저머리가 완전히 시원해졌어요. 처음 느껴요.” 라고 했다. 무사히 통화가 끝나자 안도의 한숨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그 이후 아이는 열심히 중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 전혀 아이의 생각이 바뀐 것 같지 않았으나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 앞에 그의 생각도 환경도 바뀌었다. 더군다나 그를 괴롭혀던 아이들이 그와 함께 지내기를 늘 소원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이번 사건을 통하여 나 역시 전보다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가족 외의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본 적이 없었기에 당시에는 두려웠으나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신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이다. 오늘의 경험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칠지라도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김영숙

jesus_sook@naver.com

아침에 주의하라

까마귀가 고기를 물고와 나뭇가지에 앉아 먹고 있었습니다. 마침 허기를 느껴 먹을 것을 찾던 여우가 그것을 발견하고는 군침을 삼키며 어떻게 하면 까마귀가 먹는 고기를 빼앗을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밑에서 여우가 왔다 갔다 하니 까마귀는 보란 듯이 더욱 맛있게 고기를 먹었습니다. 이러다가는 까마귀가 고기를 다 먹을 판, 얄팍한 여우는 드디어 방법을 찾았습니다. 여우가 까마귀에게 말했습니다. “까마귀님, 당신은 모든 새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계십니다. 까만 털은 위엄이 있어 보이십니다. 그런데 당신의 목소리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당신이 목소리까지 갖추었다면 분명히 당신이 새들 중 왕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나뭇가지에 앉아 듣고 있던 까마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아름답다는 말은 처음 들어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까마귀는 이참에 자기의 목소리로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목소리를 뽐냈습니다.

그 순간 입에 있던 고기가 그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떨어진 고기를 냉큼 물고 여우는 달아나면서 말합니다. “어리석은 까마귀야. 칭찬에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자가 어떻게 새들의 왕이 될 수 있겠니? 어리석기는...”

사람들이 꿈의 쓸개를 꺼낼 때는 꿈에게 사랑을 준다고 합니다. 사랑의 달콤함에 빠져 있을 때 쓸개를 빼내는 것이요. 지나친 칭찬, 과도한 배려 뒤에는 비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잠29:5).

큰 소리, 경쾌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함정에 빠지지 않는 길입니다. “혼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네 생명이니라”(잠4:13).

예수중심편집실



::성경 에세이::



귀를 기울이세요

게임을 술과 마약, 도박과 같은 중독 관리대상에 포함하지는 법안이 발의되어 한창 갑론을박이 치열한 이 때, 좀 다른 의미로 화제가 되고 있는 스마트폰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과 12제자를 소재로 한 퍼즐 게임인데요, 뒤섞여 나오는 12제자의 얼굴을 똑같은 것끼리 연결해서 터트리면 득점하는 방식입니다. 배경음악으로 찬송가가 흐르고, 게임을 시작할 때 “살롱”, 게임이 끝나면 “아멘”이라는 효과음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게임을 한 판 끝날 때마다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구절의 빈 칸을 채워 넣으면 보너스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또 아이템으로는 다윗의 왕관, 모세의 지팡이, 십자가에 돈을 주고 구입해야 하는 ‘전도사’라는 아이템까지 있습니다. 이 게임 수익의 일부는 구호단체에 기부되며, 얼마 전에는 스마트폰 게임 분야에서 상도 받고 수출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게임은 그저 게임일 뿐이라고, 선한 일을 하려는 취지와 목적을 가졌으니라 좋게 바라보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이 게임 소재로 가볍게 쓰이고, 위대한 믿음의 선전들과 주의 종이 게임 캐릭터가 되며,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점수를 따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죄악과 거짓 속임이 만연한 이 때, 자각 있는 영성과 분별이 필요한 때입니다.

선재성 전도사

blessedmc@naver.com

내 나이가 어때서

여보게!

요즘 내 핸드폰에 저장해놓고 다니는 유행가가 하나 있네. 사무나에 갔더니 누가 이 노래를 가르쳐주더군. 그런데 가사가 맘에 쏙 드는 거야. 그래서 손녀에게 다운받아 달라고 해서 지니고 다닌다네. 가사 한 번 들어볼 텐가?

“아이~아이~아~/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에 나이가 있나/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이 바껴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어떤가? 자네 마음에도 가사가 와 닿는가?

나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생각이 많았네. 사람들은 60이 넘으면 무슨 일에도 ‘나이가 많아서’라는 이유를 많이 대지.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해?”, “이 나이에 뭘 시작해?” 이렇게 말을 하지. 그러나 이 나이가 어때서? 우리 나이가 일하기 딱 좋은 나이가 아닌가? 경험도 많고, 세상도 알고, 아직 힘도 있고.

내가 늘 말하는 거지만, 사막에서는 늙은

낙타를 타야하고, 아프면 노(老)의사가 제격이거든. 당연히 패기는 젊은이보다 없겠지. 그러나 패기를 이길 수 있는 인내와 노련미가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요즘 정년퇴직한 사람들이 창업에 뛰어들어 붐이 일고 있는데, 나는 그것이 마땅한 일이고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네. 그래서 나는 요즘 나이가 좀 있다고 구들장이나 찜어지고 있는 자들에게 이 노래를 들려준다네. 일하기 딱 좋은 나이니 도전하고 다시 시작하라고. 당신 나이가 어때서라고.

그리고 또 하나, 요즘 젊은 애들은 혼자된 부모가 재혼을 하겠다고 하면 그 나이에 무슨 재혼이냐고, 그냥 얼마 남지 않은 여성 손주나 보면서 살라고 하는데, 애들이 모르는 것이 있네. 지네 마음이나 늙은 마음이나 노레가사처럼 마음은 하나라는 것을. 암만 나이가 들어도 좋은 것 보면 좋은 줄 알고, 아름다운 것 보면 탄성이 나오는 것은 같다고. 마음에 든 사람을 보면 만나고 싶고 보고 싶다는 것은 지네나 같다고.

그래서 혹 혼자된 부모가 이성을 만나면 망측하더니, 늙어서 주책이라니, 망령났다니 하는 놈들, 지네도 나이 들어

보라지. 그 때 역시 마음은 언제나 청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겉세.

여보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네. 젊든 나이가 문제될 건 없네. 문제는 생각이야. 피가 끓는 20대라고 해도 생각이 늙었으면 늙은이야. 때마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자를 누가 젊다할 수 있겠나? 반대로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하고, 허리는 좀 굽었어도 ‘지금도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아직도 청춘인 셈이지. 애굽에 억압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낸 80의 모세를 누가 노인네 취급하겠는가?

나는 내가 늙었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네. 머리술은 없고, 얼굴에 주름은 깊지만, 나는 지금도 하고 싶은 일, 내가 할 일이 너무 많기에 세월을 앞서 달리지. 경험 없이 덩벙대고, 마음만 앞서 가서 실수하면 젊은 시절보다 지금이 일하기 딱 좋은 나이라고 나는 생각하네. 그러니 자네도 나이 탓하지 말고, 일어나 다시 시작해나.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잠16:31).

朋友

목사님 생신을 위해 6개월을 준비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요13:20)**



목사님의 생신파티를 성대하게 베풀어준 마코토, 엘리사 부부



파라과이 예수중심교회 일꾼들과 함께 목사님의 생신파티

파라과이(Paraguay)까지의 여정은 너무나 길이라 사실 이번 방문 자체를 재고하기도 했었다. 수도 아순시온(Asuncion)이 아니라 아르헨티나(Argentina) 국경과 접한 남쪽 도시 엔카마시온(Encarnacion)으로 가는 길이라 더 먼 셈이었다. 가는 데만 꼬박 3일이 걸렸다. 물론 다이렉트로 가면 이를 안에 갈 수도 있겠지만, 도착으로 끝나는 일정이 아니라 집회와 세미나 등 많은 스케줄이 기다리고 있기에 목사님이나 우리 모두 체력 안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시기가 목사님 생신과 맞물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파라과이에서 목사님의 생신을 맞게 되었다. 마침 도착 날짜가 11월 21일, 목사님 생신날이었다. 아르헨티나 포사다스(Posadas)에

간 색깔이 변하고 있었다. 보통 신경을 쓴 게 아님을 여실히 알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보라색 톤을 살린 커튼, 식탁보 등이 여러 데코레이션과 어우러져 화려하면서도 매우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었다. 단지 파티장 장식뿐 아니라 준비한 음식, 공연 등 보통 섬세한 설정이 아니었다. 엘리사 집사가 워낙 이렇게 꾸민다고 장식하는 걸 좋아한다. 남편 마코토 집사는 아내의 이런 기질에 매우 곤혹스러울 때가 많다고 하소연하여 좌중의 웃음을 자아냈지만, 그 또한 행복이 넘치는 비명으로 들릴 뿐이었다. 물론 마코토 집사의 입술을 보니 아내의 등쌀에 순응하며 함께 준비하느라 입술이 다 부르트어있었다. 이런 준비를 하자면 보통 노력으로는 힘들었을 테니 충분히 이해가 가는 대목이었다. 그러나 목사님을

극진히 모시며 섬기려는 그 마음만은 누구라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엘리사 집사의 고백을 들어보자니 목사님의 생신파티를 준비하기 위해 무려 6개월을 고민하며 준비했다. 그러니 만일 이번 방문을 취소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한 셈이었다.

목사님은 마코토, 엘리사 집사 부부의 넘치는 사랑에 할 말을 잊으신 듯했다. 또한 이 선교사, 라구나(Laguna) 목사 가족 및 교회 일꾼들이 함께 축하해준 자리에서 목사님은 사랑을 강조하셨다. “오늘 이 파티는 내 평생 처음 경험하는 아름답고 완벽한 파티입니다. 아름다운 장식과 순서들, 섬세하고 아기자기한 배치, 깊은 배려, 무엇보다 나무랄 데 없는 최상의 파티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감동을 주는 것은 이 부부의 사랑과 정성입니다.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다(요13:20). 이들은 단순히 나를 대접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대접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이 파티에 소요된 모든 소품들에 사랑의 하트가 들어있는 것만 보아도 엘리사 집사의 마음이 어떠한지 잘 알 것 같습니다. 지극히 작은 커피 잔 손잡이조차도 하트 모양이네요, 온통 사랑, 사랑,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부로부터 진정한 사랑의 선물을 듬뿍 받습니다. 또한 사랑이 주는 기쁨도 듬뿍 느낍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추구해야 할 지상 최고의 가치입니다. 오늘 너무 감동이 벅칩니다. 이 부부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마코토 집사는 그 성격대로 수줍음에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이고, 엘리사 집

사는 손가락을 하늘로 가리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정말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이 아닐 수 없었다.

마코토 집사 부부는 이날의 생신파티 뿐 아니라 연일 집회가 끝나면 꼭 밖에 집으로 초대하여 만찬으로 대접해주었다. 그리고 만찬이 끝나면 꼭 선물 하나씩을 챙겨주고, 남은 음식을 챙겨 교회에서 수고하는 일꾼들에게 보내주는 사랑의 배려까지도 아끼지 않았다.

상대를 대접하는 자세가 어떠한지 하는 지 깊이 깨닫게 하는 부부였다. 정말 진심을 다해 대접하는 것이 어떠한지 하는 지 보여주는 부부였다.

목사님이 엘리사 집사를 칭찬하며 거듭해서 “마코토는 좋겠네~!” 하면, 처음에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수줍어하던 마코토 집사도 나중에는 스스로 “마코토 둘째 비다(Macoto Dulce Vida, 달콤한 인생)”라고 화답하며 즐거워했다. 아내의 너무 섬세한 기질에 힘들어하기도 했었던 모양이지만, 목사님이 그토록 행복해하시고 즐겨워하는 모습에 그의 생각도 아내에 대해 밝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던 것이다.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며 남편에게, 아내에게 맞춰가는 자세만 갖는다면, 어찌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할까? 목사님은 끝으로 정리해주셨다.

“사랑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곧 희생입니다.”

더 무슨 말이 필요할까? 이 한마디의 정의만 가슴에 깊이 새긴다면, 인간사회의 많은 갈등과 고통들, 무엇이 문제이겠는가? 정답은 사실 간단하고 쉽다. 문제는 실천 아니겠는가? 깊이 유념할 일이라 생각한다.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자녀의 깊은 속을 헤아리자

::Edu Section::

얼마 전, 건강하고 씩씩하기만 했던 딸 아이에게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그동안 딸아이가 수년 동안 의도적으로 세상과 답을 쌓고 살아왔고, 그리 살다보니 우울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작은 사각의 방에서 힘들고 버겁게 하루하루를 지냈다고 고백한 것이다. 세상 누구보다 딸과 친구처럼 잘 지낸다고 생각했고, 끊임없는 대화로 의사소통이 잘 이뤄지는 사이좋은 모녀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딸의 고백은 정말이지 충격, 그 자체였다.

엄마인 내가 딸아이에게 해준 것이 무엇인지, 그토록 커다란 짐을 홀로 지고 고군분투의 삶을 살면서, 왜 수년 동안 단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고 살았는지, 엄마라는 권위를 내세워 정신적으로 혹사를 시킨 것은 아니었는지, 생활의 무거운 굴레로 인해 학업에 지장

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등, 더 늦기 전에 딸아이가 세상을 향한 마음의 문을 다시 활짝 열 수 있도록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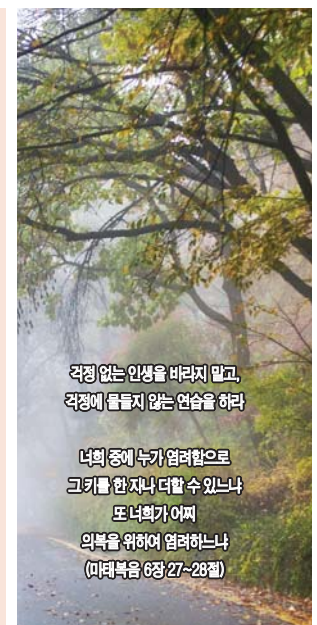
어쩌면 우리는 가장 가까운 가족과 자녀들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 당연시 여기면서 살고 있는 것 같다. 서로에게 고마웠던 것들은 당연한 것이 되었다. 잘못해도 잘못했다는 소리를 묻어둔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다보니 어느 순간 이해와 사랑의 한계를 넘어서고 대화의 문이 닫히고 만 것이다. 부모의 권위에 짓눌린 유약한 자녀는 말할 수 없는 상처를 가슴에 앓고 살아 가고 있었지만, 그동안 엄마는 소중한 딸아이의 고통의 시간을 모르고 살아왔었다. 긴 대화의 시간 끝에 딸을 가슴에 안고 전심으로 “딸아, 엄마를 용서해 줘!”라며 진심어린 고백을 했다.

가슴을 여는 진지한 대화 없이 오래 살다보면, 서로의 아픔 따위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여기기 마련인가보다. 부모가 아프고 바쁘다는 이유로, 삭막한 세상을 이겨내야 한다는 이유로, 가끔씩 들리던 자녀의 신음소리를 모른 척 하기도 했었고, 그 정도의 어려움쯤은 신앙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이 자녀를 고통의 시간에서 서성게 했다.

부모라는 권위 의식을 이유로 자녀를 구속하고 아프게 할 권리는 없다. 한해가 저물어가기 전에 자녀와의 깊이 있는 대화의 시간을 가져서 더 늦기 전에 우리 자녀들이 평안 가운데에 거할 수 있도록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아비들이 너희 자녀를 격노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골3:21).

오자유

oh.free@hanmail.net



걱정 없는 인생을 바라치지 말고,
걱정에 휩쓸리지 않는 연습을 하라

너희 중에 누가 열려함으로
그대를 한 자나 데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열려하느냐
(마태복음 6장 27-28절)